

세계시민교육이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이숙정*, 김혜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e-mail: leesjeong@sookmyung.ac.kr

The Influenc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n Self Reflection and Global Citizenship of College Students

Sook-Jeong Lee*, Hye-Young Kim*

*Div. of Gener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대학교양교육에서 실시하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소재 S대학에서 교양필수 교과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에 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개강 직후에 사전검사를, 종강직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145명이 최종 분석대상이며,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상관분석, 대응표본 t-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25.0이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 모두 사전-사후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세계시민교육의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성찰은 세계시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추정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세계시민교육은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책무성의 한 부분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검증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위한 교육전략의 모색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1. 서론

자기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이해와 더 나아가 자기성찰 역량을 키우기 위한 충분한 경험과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정보화, 그리고 인공지능이 급속하게 발달하는 현 시점에서 미래사회의 중심으로 성장해야 하는 대학생의 성찰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대체되지 않을 전문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며, 동시에 대학은 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하여 빠르게 교육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다. 더 이상 특정지식을 전달하고 학습하는 교육으로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들에 현명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대학은 이제 무엇에 집중하고 선택하며 그것들을 조합하고

융합하며, 적용가능성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의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차원의 역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개인적 차원에 필요한 자기성찰(self-reflection) 역량이다. 자기성찰은 온전한 자기이해에 이르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힘, 즉 통찰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 자기성찰이 개인의 경험과 관계된 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신과 타인 간의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1], 다름에 대한 인정, 다양성에 대한 인식,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 등에 대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중요한 역량이다. 이러한 자기성찰은 대체로 메타인지(meta cognition)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과정에 대해 생각하여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지각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며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수행을 위해 조절하고 통제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차원에서 필요한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 역량이다. 세계시민성은 시민이라는 지위에 기대

되는 자유, 권리, 책임,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덕성의 총체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육성되어야 하는 역량이다[2]. 2015년 5월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미래교육의 핵심키워드로 부상했고 같은 해 9월 UN이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네 번째 목표에 세계시민교육이 포함되면서 글로벌 교육의제로 관심을 받고 있다[3].

세계시민성은 세계적 이슈들을 인류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여 지구촌 사회의 공존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에 기인한다. 세계시민성은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전 세계와의 연대감을 느끼는 세계관으로 상호의존적 체제를 이해하고 협력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며 세계적 수준에서 자신의 책임에 대한 태도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4].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와 미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시민성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공동체적 상생을 국가적인 수준에서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지향점을 세계시민성을 통해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들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시민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시민교육의 세계적 차원은 물론 정책, 교육과정, 교수학습에서 세계시민성이 무엇을 함의하는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영역은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인권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의 내용들을 포함한다[5].

전지구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고[6][7], 2010년대 중반부터 경희대, 숙명여대 등 몇몇 대학들을 중심으로 세계시민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대학신입생이나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교양(필수)교육, 교과 또는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대부분 일방향적인 지식전달의 과정을 넘어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공공관련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례 역시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필수 교과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교과운영은 교양필수 교과목의 특성상 커리큘럼이 일정정도 정해져 있지만, 운영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역량과 사회적 차원의 역량 모두를 포괄하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을 통해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세계시민교육이 학생들의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 역량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개인의 성찰 능력이 세계시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서울소재 S 대학교의 교양 교과목을 수강하는 1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45명이 연구대상이며, 연령범위는 18세-23세(M=19.290, SD=.889)이고, 여자대학이므로 수강생은 모두 여성이다. 전공별 분포를 보면, 교양교과목의 특성상 인문사회계열, 어문계열,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등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2.2 연구방법

2.2.1 세계시민교육 교육프로그램

본 연구는 세계시민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전과 후의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의 사전-사후 검사를 수행하였다. S대학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10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회정의, 인권, 지속가능발전 등의 주제들은 2-3주차에 걸쳐 진행되기도 한다(표 1 참조).

[표 1] S대학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주차	내용	활동
1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100분 강의+토론+실천+피드백
2	자기이해와 자아성찰	
3	관계 구축	
4	공감과 소통	
5	영향력	
6	문제해결	
7	세계시민윤리와 책임감	
8	사회정의와 인권	
9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10	다문화사회와 영향력	

각 교육내용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최소한으로 강의하고,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은 토론과 발표로 이루어지는데, 학생들 스스로 글로벌 이슈를 찾아내어 심층 분석하고 문제의 해결방법 및 개인적 차원에서 또 집단적 차원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35-40명의 학급크기이며 전공이 다양한 학생들 4-5명으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함께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성찰을 측정하기 위해 황주연(2011)의 자기성찰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자기탐색, 타인이해, 타인탐색, 자기이해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이다[8].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 alpha는 사전 검사에서 .839, 사후 검사에서 .826 이었다.

둘째, 세계시민성을 측정하기 위해 지은림과 선광식(2007)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대상으로 하여 개발한 세계시민성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9]. 원 척도는 이론적 탐색을 통해 세계시민성을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고 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 다국적 의식, 지구공동체의식의 네 개의 요인들을 추출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국가정체의식이 전체 세계시민성을 측정하는 구성요소로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하였기에 이를 제외하고, 또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이 기준 이하인 문항을 제외해서 최종 2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 alpha는 사전 검사에서 .857 사후 검사에서 .811 이었다.

2.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의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기성찰이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5.0이었다.

3. 연구결과

3.1 사전-사후 검증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후의 비교를 위해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에 대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진행하고 두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성찰의 하위요인과 총합, 그리고 세계시민성의 하위요인과 총합 모두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더 높았으며,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2] 사전-사후 분석결과

구분	사전		사후		t
	M	SD	M	SD	
자기탐색	3.71	.42	3.88	.41	-10.90***
타인이해	3.38	.39	3.49	.38	-7.61***
타인탐색	3.77	.39	4.01	.35	-11.45***
자기이해	3.67	.50	3.90	.41	-10.18***
자기성찰 총합	3.63	.32	3.82	.27	-16.17***
공동체 의식	3.30	.55	3.44	.61	-7.68***
다국적 의식	3.65	.63	3.73	.67	-6.14***
시민의식	4.20	.42	4.37	.37	-11.64***
세계시민성 총합	3.72	.41	3.84	.43	-14.03***

***p<.001

3.2. 자기성찰이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두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변인의 상관관계는 .595(p<.00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두 변인의 정적 상관을 확인한 후, 자기성찰이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은 회귀모형이 산출되었고,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 결과는 자기성찰이 세계시민성을 예언하는 유의한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자기성찰의 세계시민성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B	SE	t	p
자기성찰	상수	.268	.404	.664	.508
	세계시민성	.936	.106	8.859	<.001
ANOVA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	9.264	1	9.264	78.483	<.001
잔차	16.880	143	.118		
전체	26.144	144			
R=.595, R2=.354, SE=.343, p<.001, Durbin-Watson=2.03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사례로 S대학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교양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기성찰과 다양한 세계 시민성 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대학들이 재학생들의 세계시민성 및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시민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시민성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권리보다는 책임을, 차별보다는 평등을, 개발보다는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학이 단순한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학생들의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점차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시민성 함양이라는 거대 담론을 핵심적인 교육내용으로 채워가고 있고 초국가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이 교육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10]. 4차 산업혁명시대에 아직은 인간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는 능력, 즉 무엇이든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함, 창의력, 공감 등의 역량은 자기성찰의 끊임없는 경험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은 정보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양극화되는 그리고 점점 불거지는 글로벌, 글로벌 한 윤리적 이슈에 대한 책임의식과 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세계시민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자기성찰을, 사회적으로는 세계시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과 정책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Park, J. J. & Millora, M. L., "The relevance of reflection: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role of reflection in ethic of caring, leadershi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 53, No. 2, pp. 221-242, 2012.
- [2] 김혜영, 유지현, "대학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례 연구", *시민인문학*, 제38호, pp. 9-32, 2월, 2020.
- [3] 이성희 외, "세계시민교육의 실태와 실천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5-25*, 2015.
- [4] 송민경, "Global Citizenship(지구시민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1권, 12호, pp. 483-512, 12월, 2014.
- [5] UNESC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Paris, UNESCO, 2015.
- [6] 박환보, "왜 세계시민교육을 해야 하는가", *에듀인뉴스*, 2016.11.15.
- [7] 이상아, 이희욱, 최외출,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새마을정신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3호, pp. 187-208, 가을, 2020.
- [8] 황주연, "자기성찰 척도개발 및 자기관과 자기성찰, 안녕감간의 경로모형 검증",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8월, 2011.
- [9] 지은림, 선광식,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제39권 4호, pp. 115-134, 12월, 2007.
- [10] 김종훈, "세계시민교육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제15권 2호, pp. 47-95, 4월, 2020.